

전통시장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방향성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Universal Design Application for Improving the User Environment of Traditional Markets

주 저 자 : 김은지 (Kim, Eun Ji)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 전공 석사과정
공 동 저 자 : 이재규 (Lee, Jae Gyu)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간디자인 전공 교수
교 신 저 자 : 장영호 (Jang, Young Ho)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 전공 교수
nagoyajang@hongik.ac.kr

<https://doi.org/10.46248/kids.2025.4.717>

접수일 2025. 11. 10. / 심사완료일 2025. 11. 25. / 게재확정일 2025. 12. 08. / 게재일 2025. 12. 30.

Abstract

In recent years, traditional markets have been experiencing increasing inconveniences for users due to aging facilities, poor accessibility, and a lack of amenities. Furthermore, they are failing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accommodates users with diverse physical conditions, ages, and language backgrounds. Accordingly, this study derived universal design evaluation items through the cases of Seoul Hwagok Central Alley Market and Daejeon Jungang Market, and based on this, compar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Incheon Moraenae Market and Guwol Market, where support projects focused on simple facility improvement were implemented, to diagnos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upport projects and examine the necessity of a support system that includes universal design.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while existing support projects such as facility modernization and cultural tourism promotion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physical environment,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universal design was insufficient. In particular, while major facilities such as access facilities, sales facilities, and restrooms received minimal maintenance, other convenience facilities and guidance systems were not considered.

Keyword

Traditional market(전통시장), Universal design(유니버설디자인), Inclusivity(포용성)

요약

최근 전통시장은 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저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체 조건과 연령, 언어적 배경을 가진 이용자를 포용하는 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화곡중앙골목시장과 대전 중앙시장의 사례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 시설 개선 중심의 지원사업이 진행된 인천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진단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이 포함된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시설현대화나 문화관광형 육성 등 기존의 지원사업은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기여하였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 적용은 미흡하였고, 특히 접근시설과 판매시설, 화장실 등의 주요 이용 시설들은 최소한의 정비만 이루어졌으나, 그 외 편의시설과 안내체계 등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차

1. 서론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고찰

- 2-1. 전통시장 정책 및 지원사업
- 2-2.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선행연구
- 2-3.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3. 인천 구월·모래내시장 분석

- 3-1. 인천 구월·모래내시장
- 3-2. 모래내시장 현황 분석
- 3-3. 구월시장 현황 분석
- 3-4. 분석종합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통시장은 오랜 기간 지역의 경제와 생활문화의 거점으로 기능해 왔으나 현재는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편의시설의 부족 등으로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심화되고 있다. 주요 고객층은 60세 이상의 고령인구¹⁾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점포주의 평균 연령 또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²⁾ 한편, 최근에는 로컬 체험과 문화적 경험을 찾는 20~30대 젊은 층³⁾과 가족 단위 방문객,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확대되고 있어 특정 세대나 계층을 넘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현대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변화, 인구의 이동 및 변동, 소비패턴의 변화 등 다중적인 도시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 상권활성화 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사업들은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 등 물리적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특성화시장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력을 높이는데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원이 단기적 성과 창출이나 외관 개선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 적용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전통시장 지원사업 가운데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진행한 사례를 대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정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순 시설 개선 중심의 지원사업이 진행된 인천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서 유니버설디자인 항목을 제도적으로 포함할 필요성을 도출하고, 향후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있어 정책적, 행정적 도입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생활거점에서 관광 및 상업활성화를 통한 지역특화거점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KB국민카드 데이터루트, '전통시장 카드 소비 데이터 분석', (2025.10.12.)
dataroot.kbcard.com/dbd/app/openLabInsightView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전통시장부문)', 2024, p.12

3) KB국민카드 데이터루트, Op. cit. (2025.10.12.)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문헌고찰과 사례분석, 현장조사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추진된 전통시장 사례와 일반적인 시설 개선 중심 지원사업이 진행된 시장을 비교, 분석하였고, 특히 시설 개선이 진행된 전통시장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을 도출하여 제안하는 것을 연구 범위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통시장 시설 개선 항목을 포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조사하고 전통시장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과 이에 관한 선행연구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의 사례로 서울 화곡중앙골목시장과 대전 중앙시장을 조사하여 개선된 항목과 성과를 정리하였다. 셋째, 두 가지의 사례에서 도출된 유니버설디자인 개선 항목을 바탕으로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을 설정하였다. 넷째, 인천 구월·모래내시장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기존 지원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과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전통시장 정책 및 지원사업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실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으며, 이 중 '특성화시장육성' 사업은 전통시장의 물리적 인프라 개선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상권활성화 사업(舊 상권르네상스)'은 지정 구역을 중심으로 상권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서 지원항목을 시장유인형, 고객편의형, 유니버설디자인형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있다. 2022년에는 대전 중앙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형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되었고, 2023년에는 고성 공룡전통시장이 선정되었다. 이는 중앙부처 지원사업 가운데 전통시장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직접 적용하고자 한 대표적 사례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상위 법률과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통시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2020년에는 화곡중앙골목시장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최초의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경기도 또한 매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대상지를 공모하는데, 2025년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선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를 포함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추진한 전통시장 지원사업 가운데 전통시장의 이용환경 개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전통시장 지원사업 종류 및 주요 내용

주관 부처	사업명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육성	시설 기반 조성, 특화 테마 조성 등
	상권활성화(舊 상권르네상스)	상권환경개선(H/W) 및 상권활성화지원(S/W)
행정안전부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시장유인형·고객편의형-UD형으로 구분, 편의시설 확충
지방자치단체	시설현대화	노후시설 정비, 화장실·주차장·통로 개선
	유니버설 디자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지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2-2.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선행연구

전통시장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연결한 선행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데, 다만 일부 연구에서 전통시장의 건물이나 공용공간에 초점을 두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을 평가하며 그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종훈 외1(2015)은 남대문 시장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성, 수용성, 접근성, 안전성 측면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을 분석하고 사용자를 범주를 시각·청각·지체·심신지체·노인·유아·동작·외국인으로 세분화하여 공간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이용자 친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희지 외3(2021)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된 노량진 수산시장을 사례로 공용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평가를 진행하였고,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령자나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표 2 참조)

기존 선행연구들은 전통시장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방문객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해왔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있어 유니버설디자인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단순히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지원사업 가운데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를 통해 일반 개선사업 진행 사례를 비교 점검하고 향후 지원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 항목을 제도적으로 포함할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표 2]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선행연구

연구제목	주요 내용	
전통시장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임종훈, 임진이, 2015)	키워드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노인, 장애인, 외국인
	특징	남대문 시장 건물 내부의 유니버설디자인(무장애공간 요소 포함) 현황 조사분석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공용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연구(최희지, 장세빈, 알브레즈, 가브리엘라, 황연숙, 2021)	키워드	유니버설디자인,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특징	노량진 수산시장 공용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평가

2-3.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

2-3-1. 조사개요 및 기준

전통시장 중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 검토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으로 추진된 대표적 장소인 서울 화곡중앙골목시장과 대전 중앙시장을 선정하였다. 서울 화곡중앙골목시장은 서울시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에 전통시장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사례이며, 전통시장 환경 개선에 있어 선도적 의미를 가진다. 대전 중앙시장은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서 2022년 유니버설디자인형 대상지로 선정된 사례로, 중앙부처 차원의 유니버설디자인 지원사업이 전통시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된 첫 사례 중 하나이다. 따라서 두 시장은 각각 지자체와 중앙부처 차원에서 추진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전통시장 지원 정책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조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사례조사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발간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과 (재)대전디자인진흥원이 제작한 「대전 중앙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성과 도록」을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업 추진 배경,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 항목, 개선된 시설과 성과를 정리하고,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항목을 도출하였다.

2-3-2. 서울 화곡중앙골목시장

서울시 강서구 화곡1동에 위치한 '화곡중앙골목시장'은 노후 주거지와 연계된 골목형 전통시장으로 단순한 상업 기능뿐만 아니라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과 주요 관문 및 보행도로로 활용되고 있다.⁴⁾ 서울시는 이 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행성·안전성·인지성·접근성·건강성의 다섯 가지로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시장의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개선 공간은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공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과 마을을 연결하는 진출입 공간', '시장 내부 공간', '시장과 연계된 생활도로'를 공통 유형의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령자, 아동 동반자, 장애인, 외국인으로 구분되는 이용자를 선정하고 이들의 이용 행태와 특성을 조사한 결과, 고령자는 하향된 시선, 보행과 휴식 필요, 신체 감각기능 저하라는 특징이 나타났다. 아동 동반자는 유

[표 3] 이용자 특성 조사

구분	특성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기능 저하로 보조보행기를 활용 - 시선이 점차 하향하여 비교적 낮고 짧은 시거리 - 보행 중 쉬는 일이 잦으며, 청력저하로 주변의 소리에 반응도가 낮음 
아동 동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모차 등 보조수단으로 인해 원하는 공간으로 접근이 매우 어려움 - 아동 케어를 동시에 하는 일이 많아,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지 못함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감각기능 저하로 방향 전환 및 위험요소에 대하여 미리 대응하기 어려움 - 관련 정보를 시장 이용 전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나, 도움받을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임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안내에 대한 수단이 부재하여 길찾기에 어려움을 느낌 

출처 :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발책 재구성

4)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2020, p.10

모차 이용으로 인한 접근의 제한과 돌봄 상황에서의 주의력이 분산이 두드러졌고, 장애인은 신체·감각기능의 저하와 접근의 제한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안내체계의 부족으로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3 참조)

이러한 이용자 특성을 토대로 수립된 유니버설디자인 마스터플랜은 크게 3개 영역으로 구분되며, 6가지 테마로 총 23개의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표 4 참조)

[표 4]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항목

구분	항목
A. 시장 진출입부	A-1 안전한 접근공간(접근·안전시설)
	① 대각선 횡단보도 및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
	②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③ 진출입부 바닥 보행성 개선
	A-2 안전한 대기공간(대기·편의시설)
	④ 대기공간 영역성 강화 및 안전·편의시설
	⑤ 안내사인 결합형 음향신호기 및 안전손잡이
B. 시장 내부	⑥ 보행벤치 일체형 그늘막
	⑦ 시장-마을 연계 벤치형 안내시설물
	B-1 걷기 편한 시장(보행 안전시설)
	① 보행로 페이빙
	② 다목적 보행안전시설
	B-2 이용이 쉬운 시장(공공편의시설)
	③ 방재·안전 시설 정보
	④ 건강마실길 조성 및 사운드 시스템
	⑤ 보행쉼터(유희공간 활용)
	⑥ 시장 맞춤형 쓰레기 수거함
	⑦ 반려견 위생시설
C. 시장연결 생활도로	B-3 찾기 쉬운 시장(공공안내체계)
	⑧ 다감각 공간인식사인
	⑨ 시장 에티켓 안내시설
	⑩ 정보통합 안내시설
	⑪ 공공안내사인
	C-1 안전한 보행공간(보행안전·편의시설)
	① 교통 정온화를 위한 공간계획 (시장출입구 및 교차로)
	② 교통안전시설 : 스마트 반사경
	③ 보행안전 대기공간
	④ 보행자 간이쉼터

출처 :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2020, p.16

화곡중앙골목시장의 유니버설디자인 항목은 시장 진출입부와 생활도로, 내부 공공공간 등 공공적 성격의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시장 내부의 매대, 간판, 화장실 등 상인 개별 점포와 직접 관련된 시설 개선은 제외되었으며, 이는 타 사업과의 중복을 피

하기 위한 범위 설정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오히려 전통시장 주변 공공시설물이나 내부 보행로 개선 측면에서는 강화된 모습을 보인다.

2-3-3. 대전 중앙시장

대전 동구에 위치한 중앙시장은 대전역 앞부터 대전 천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시장으로, 중앙종합시장, 중앙상가시장, 자유도매시장, 신중앙시장, 중앙도매시장 등 여러 개의 단위시장이 집합된 종합시장이다. 대전 원도심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대전역과 함께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공유해온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⁵⁾

2022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의 유니버설디자인형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2023년 1월에 본격적인 시설 개선이 추진되었으며, 2024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었다. 대전 중앙시장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은 (재)대전디자인진흥원이 사업 주체로 참여하여 상인회 및 지역 주민과의 협력 속에 추진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다층적 조사 및 분석,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 도출, 토털 디자인 개발의 네 가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또한 대전 중앙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점검 대상 항목을 수립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방향성이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접근성(Accessible for all), 포용성(Usable for all), 안전성(Safe for all)이 핵심 UD 기본사항으로 정립되었고, 이후 접근시설, 판매시설, 위생·편의시설, 안전·안내시설로 사업이 구체화되었다.

[표 5]의 시설별 디자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시설 설치와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우선, 시장의 진입부와 주요 동선을 안내하는 외부 게이트 및 내부 안내사인을 정비하여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위생편의시설로는 유희공간을 활용한 휴게 쉼터가 조성되었고, 화장실에는 남녀 및 장애인 화장실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인지성을 높였다. 안전시설 측면에서는 화재에 대비한 소방시설의 위치도를 제작하고 넷지디자인을 적용해 시인성을 개선하였으며, 위급상황 대응을 위해 자동제세동기(AED)를 추가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매시설은 판매대 규격화와 간판개선을 통해 고객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개선을 하였다.

5)(재)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 중앙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성과 도록’, 2024, pp.18-19

[표 5] 시설별 디자인 기본계획

구분	세부 내용
A. 접근시설	여유있고, 쾌적하게 거닐 수 있는 시장
	a1 보행로 단차(횡단경사) 최소화
	a2 쇼핑카트 및 물품 보관함 설치 권장
	a3 보행 가이드라인 제시
B. 판매시설	깨끗하고, 보기 쉽게 정돈된 시장
	b1 적절한 높이와 배치 및 설치 용이한 모듈화 구조 권장
	b2 규격화된 판매대 권장
	b3 판매대 인지성 및 심미적 요소 강화
	b4 소방차 진입을 위한 상품 진열 제한선 확보
C. 위생·편의시설	편하고, 여유롭게 즐기는 시장
	c1 휠체어, 유모차 공간 고려한 쉼터 계획
	c2 시장 환경 고려한 모듈화 구조·재질 사용
	c3 가족화장실, 영유아배려공간, 관리시설 배치
	c4 남녀 화장실 동선 분리
	c5 화장실 범죄 예방 시설 설치
D. 안전·안내시설	쉽게 읽히는 시장
	d1 시각적 연속성 고려한 안내체계
	d2 시장 품목, 구역안내를 위한 픽토그램(심볼) 또는 컬러코딩 활용
	d3 축지도 안내판 설치
	d4 다국어 사용과 픽토그램으로 언어장벽 해소
	d5 비상시설 인지 디자인 적용

출처 : (재)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 중앙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성과도록, 2024, p.30-33 재구성

대전 중앙시장의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은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인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장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매시설·위생편의시설·안전시설 개선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공공적 공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했던 화곡중앙골목시장 사례와 달리, 상인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시설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다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일부 항목은 실제 실행 단계에서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는 예산과 사업 범위의 제약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으로서 전통시장 내부 이용환경 개선을 직접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향후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 항목을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사례가 된다.

2-3-4.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앞서 살펴본 화곡중앙골목시장과 대전 중앙시장 사례는 전통시장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 대표적 시범 사례로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화곡중앙골목시장은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시장 진출입부와 생활도로, 내부 공공공간 등 공공적 성격의 영역에 초점을 맞

추여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상인 개별 점포와 직접 연결되는 매대·간판·화장실 등은 타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되었으며, 이는 공공시설 중심의 개선 범위를 보여준다. 반면 대전 중앙시장은 중앙부처 주도의 사업으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인회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고, 판매시설·위생편의시설·안전시설 등 시장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두 사례는 전통시장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가 공공공간 중심인지, 혹은 시장 내부 이용환경 중심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사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통시장에 필요한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1차적으로 서울 화곡중앙골목시장의 사례에서는 시장 주출입부와 시장 내부를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항목을 구성하고, 공간요소를 접근/안전시설, 대기/편의시설, 보행안전시설, 공공편의시설, 공공안내체계로 구분하였다. 한편, 대전 중앙시장의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항목과 비교·보완하여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분석항목을 재구성하고 공간요소를 접근시설, 판매시설, 위생/편의시설, 안전/안내시설로 구분하였다. 2차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적 공간요소를 중심으로 통합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접근/안전시설과 보행안전시설, 접근시설은 유사성이 높아 접근시설로 통합하였다. 또한 전통시장 이용환경의 핵심 요소인 판매시설은 그대로 선정하였으며, 대기/편의시설과 공공편의시설, 위생/편의시설은 기능상 일치하므로 편의시설로, 공공안내체계와 안전/안내시설은 안전시설과 안내시설로 분리하였다.(표 6 참조)

[표 6] 공간요소 항목 도출

구분		공간요소
화곡중앙골목시장	대전 중앙시장	
접근/안전시설	접근시설	접근시설
보행안전시설		
-	판매시설	판매시설
대기/편의시설	위생/편의시설	편의시설
공공편의시설		
공공안내체계	안전/안내시설	안전시설
		안내시설

앞에서 도출한 공간요소 항목에 따라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평가를 위한 세부 항목을 설정하였다. 세부 항목은 화곡중앙골목시장 사례와 대전 중앙시장 사례에서 제시된 [표 4]와 [표 5]의 세부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이를 앞서 분류한 공간요소에 따라 재분류하여

도출하였다. 다만 두 개선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주차장 항목의 경우에는, 「대전 중앙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성과도록」에 수록된 자료 중 현장조사 시 활용된 유니버설디자인 점검 항목 가운데 주차장 관련 지표를 참조하여 보완하였다.(표 7 참조)

[표 7]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 도출

구분	세부 내용
A. 접근시설	a1 주출입구 무단차
	a2 보행로 무단차
	a3 보행 안전선 설치
	a4 주차장 보차도 분리
	a5 장애인 주차구역 및 접근 동선 확보
B. 판매시설	b1 규격화된(모듈화) 판매대 설치 권장
	b2 판매대의 적절한 높이와 배치 고려
	b3 판매대 인지성 및 심미적 요소 강화
	b4 상품 진열 제한선(보행안전선) 준수
C. 편의시설	c1 휠체어, 유모차 공간 고려한 쉼터
	c2 다목적화장실 설치
	c3 영유아배려공간 설치
D. 안전시설	d1 방재/안전시설 정보
	d2 비상시설 인지 디자인 적용
	d3 남녀 화장실 동선 분리
	d4 화장실 범죄 예방 시설 설치
E. 안내시설	e1 시각적 연속성을 고려한 안내체계
	e2 구역안내를 위한 픽토그램 및 컬러코드 사용
	e3 다국어 안내 및 픽토그램으로 언어장벽 해소
	e4 축지도 안내판 설치
	e5 다감각 공간인지사인
	e6 시장 에티켓 안내시설

3. 인천 구월·모래내시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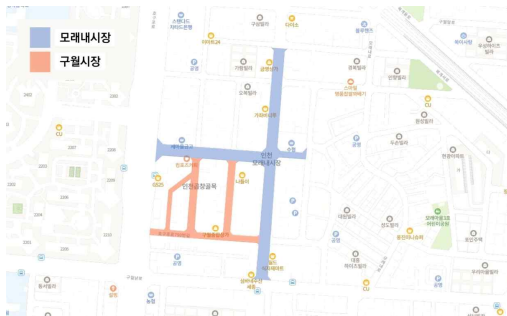
3-1. 인천 구월·모래내시장

인천 모래내시장은 인천의 종합시장 가운데 가장 넓은 매장면적을 보유한 시장으로 구월시장과도 경계 없이 이어져 있어 인천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권역을 이루고 있다.⁶⁾ 방문객들은 대체로 ‘모래내시장’이라는 하나의 시장으로 인지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각기 다른 상인회로 운영되는 별개의 전통시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시장별로 추진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그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

모래내시장은 2006년 6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이후 2008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아케이드를 준공하였다. 2010년에는 모래내 공영주차장이 완공되었고,

6) 인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2025

2012년 2차 아케이드 준공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에도 다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서 관광·체험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가 추진되었다.⁷⁾ 반면, 구월시장은 2006년 4월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었으며, 2009년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아케이드가 준공되었다. 이어 2012년에는 공영주차장이 완공되었고, 2017년 골목형시장 육성 사업에, 2022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되면서 점진적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장하였다.⁸⁾



[그림 1] 구월·모래내시장 위치도

이처럼 인천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은 시설현대화, 골목형시장 육성,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경험하였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서울 화곡중앙골목시장과 대전 중앙시장은 전통시장에 유니버설디자인을 공식적으로 적용한 대표적 시범사례로서 각각 지자체와 중앙부처 차원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을 대상으로 앞서 도출한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을 적용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서의 미흡한 부분과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인천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25년 10월 25일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의 [표 7]의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평가항목에 따라 5가지 공간요소, 22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조사를 수행하였다.

7) 인천모래내시장, 시장역사, (2025.10.12.)
www.morae-nae-market.com/history/

8) 구월시장, 구월시장의 역사, (2025.10.12.)
www.guwolmarket.com/bbs/content.php?co_id=history

3-2. 모래내시장 현황분석

본 장에서는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모래내시장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을 시설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표 8 참조)

[표 8] 모래내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

구분	현황분석
접근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의 단차 요소는 적으나, 불법주차, 노점상, 간판 등 통행 방해 요인이 다수 존재함 - 전체적으로 보행로의 경사도가 높고 바닥 요철로 인한 단차가 다수 발생함 - 주차장 내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안전성 저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접근 동선이 비교적 양호함
판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별로 판매대 형태가 상이함 - 판매대의 높이가 낮고 배치가 불편하여 이용자 접근성 저하 - 판매대 인자성과 심미성은 고려되지 않음 - 일부 점포는 고객 안전선을 침범하고 있음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센터가 있으나 미운영 - 다목적화장실 보유 - 영유아배려공간은 화장실 내 기저귀갈이대만 설치
안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안전시설 정보 안내 미흡 - 소화기 주변 적치물로 인해 인자성 저하 - 남녀 화장실 분리되어 있음 - 화장실 비상벨 설치됨
안내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체계의 시각적 연속성 부족 - 픽토그램 및 다국어 안내 부재 - 바닥 문자를 통한 구역 안내로 시인성 낮음 - 축지도 및 다감각 공간인자사인 미설치 - 시장 에티켓 안내시설 통일성 부족

접근시설의 경우 주출입구의 단차는 대부분 개선되어 있으나, 불법 주차 차량과 노점상, 간판 등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전체적인 보행로는 경사와 바닥 요철로 인해 이동의 불편이 발생하며, 공영주차장 내 보행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이 저하되고 있다. 반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는 접근 동선이 비교적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으나, 상층 이동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단 이용이 불가피하여 보행약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판매시설은 점포별 판매대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높이와 배치가 상이하며, 고객 안전선을 침범하는 구간이 다수 존재하였다. 또한 판매대의 인지성과 심미성이 고려되지 않아 시각적으로 혼잡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편의시설 측면에서는 다목적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핸드레일이 부식되는 등 내부 시설의 관리 상태가 미흡하였다. 고객 쉼터는 공간만 있을 뿐 운영하지 않으며 유일한 영유아배려공간은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로 이용자의 휴식 편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시설의 경우 화장실 내부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장 곳곳에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인지성이 매우 떨어진다. 자동제세동기(AED)는 화장실 입구에 마련되어 있으나 시장 내부에서 이에 대한 위치 안내 표시는 확인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안전관련 정보 제공은 미흡한 편이다. 안내시설은 전반적으로 시각적 연속성이 부족하고, 바닥 문자를 활용한 안내로 이용자 혼잡 시 시인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픽토그램은 화장실 표기에 한정되어 있고, 다국어 안내나 촉지도, 다감각 안내사인인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안내체계는 부족하다. 시장 에티켓 안내시설은 통일성 없이 배치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모래내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설 현대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 적용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3-3. 구월시장 현황분석

모래내시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구월시장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표 9 참조)

접근시설의 경우 모래내시장과 연결된 주출입구(나문, 다문, 라문)는 단차 없이 접근이 가능하며 이동이 원활하였다. 그러나 대로변과 연결된 주출입구(가문)는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이 방해되는 구간이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보행로의 경사도가 있으나 통행에는 큰 어

[표 9] 구월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현황

구분	현황분석
접근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래내시장과 연결된 주출입구(나문, 다문, 라문)는 단차 없이 접근 가능하나, 일부 구간 바닥 요철로 인한 단차가 다수 발생함 - 대로변과 연결된 주출입구(가문)는 노점상으로 인해 통행이 방해됨 - 전체적으로 보행로의 경사도가 있으나 통행에 큰 어려움은 없고, 좁은 골목길은 바닥 평탄화가 미비하여 통행 불편이 있음 - 주차장 내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보행 안전성이 저하되어 있고 주차장은 접근 동선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매우 높아 장애인 이동이 어려움
판매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판매대 개편으로 표준화된 일부 점포를 제외하면 대부분 점포의 판매대 형태가 상이하고, 판매대의 인지성과 심미성이 고려되지 않음 - 일부 판매대 높이가 낮고 배치가 불편하여 이용자 접근성이 저하되며, 일부 점포는 고객 안전선을 침범하여 보행 통로가 협소함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 앞 벤치 공간이 유일한 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대로 된 고객쉼터는 부재 - 다목적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동 개폐식 도어로 이용 불편이 있음 - 영유아 배려공간은 화장실 내 기저귀갈이대만 설치
안전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 및 안전시설 정보 안내 미흡 - 소화기 주변 적치물로 인해 인지성 저하 - 남녀 화장실 분리되어 있고 화장실 비상벨은 설치됨
안내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체계의 시각적 연속성이 미흡하며, 픽토그램 및 다국어 안내, 촉지도 및 다감각 공간인지사인 부재 - 바닥 문자를 통한 방향 방향 안내로 시인성이 낮음 - 시장 에티켓 안내시설이 부재함

려움이 없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바닥 요철로 인한 단차가 다수 발생하였다. 좁은 골목길의 경우 바닥 평탄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의 불편이 나타났다. 또한 주차장 내 보행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성이 저하되었으며, 주차장에서 시장으로 연결되는 접근 동선이 협소하고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등 보행약자의 이동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판매시설은 과거 일부 점포의 판매대 개선을 통해 표준화가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의 점포에서는 표준화된 판매대를 사용하지 않아 매대 형태가 상이하였다. 일부 판매대는 낮은 높이로 배치되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점포별 판매대의 인지성과 심미성이 고려되지 않아 시각적 정돈감이 부족하였다. 또한 고객 안전선을 침범하는 점포로 인해 보행 통로가 협소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편의시설 측면에서는 화장실 앞의 벤치 공간이 유일한 심터로 따로 고객심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다목적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으나 수도 개폐식 도어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졌다. 영유아배려공간으로는 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만 설치되어 있었다.

안전시설은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주변 적치물로 인해 인지성이 낮았고, 방재·안전시설 관련 안내 체계가 부재하였다. 남녀 화장실은 분리되어 있으며, 화장실 내부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내시설은 전체적으로 시각적 연속성이 미흡하였고, 바닥 문자를 이용한 방향 안내는 시인성이 낮아 이용자 인지가 어려웠다. 픽토그램 사용은 화장실 표기가 유일하며, 다국어 표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촉지도나 다감각 공간인지사인도 부재하여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안내 환경이 미흡하였다. 또한 시장 에티켓 안내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점포별로 필요한 경우 개별사용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구월시장은 시설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3-4. 분석 종합

현황분석에 따라 적용(●), 일부적용(◐), 미적용(○)으로 구분하여 적용실태를 종합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 두 시장은 모두 전반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접근시설의 경우, 두 시장 모두 주출입구(a1)와 보행로(a2)의 단차 개선이 일부 이루어져 접근성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개선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

[표 10]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평가 결과

적용(●), 일부적용(◐), 미적용(○)

구분		분석 대상	
		모래내시장	구월시장
A. 접근시설	a1	◐	◐
	a2	◐	◐
	a3	●	●
	a4	○	○
	a5	●	○
B. 판매시설	b1	○	◐
	b2	◐	◐
	b3	○	○
	b4	◐	◐
C. 편의시설	c1	◐	○
	c2	●	●
	c3	◐	◐
D. 안전시설	d1	○	○
	d2	○	○
	d3	●	●
	d4	●	●
E. 안내시설	e1	○	○
	e2	○	○
	e3	○	○
	e4	○	○
	e5	○	○
	e6	○	○

차장 내 보행로 구분(a4)은 두 시장 모두 미적용으로 나타나,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동선이 혼재된 상태였다. 특히 장애인 주차구역 및 접근 동선(a5)은 모래내 시장에서만 적용되어 있어, 구월시장에 비해 보행약자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같은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도 사업의 주체나 과정에 따라 물리적 접근성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매시설에서는 구월시장이 모래내시장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두 시장 모두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개선에 머무르고 있었다. 모래내시장은 규격화된 판매대(b1)가 전혀 조사되지 않았으며, 구월시장에서는 극히 일부 점포에서만 표준화된 판매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점포는 여전히 각기 다른 형태의 판매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두 곳의 시장 모두 판매대의 높이와 배치(b2), 안전선 준수(b4) 항목에서 부분적 개선만 이루어졌으며, 판매대의 인지성과 심미성(b3)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두 시장의 판매시설은 상인 개별 점포의 자율 정비에 의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재하였다.

편의시설(C)의 경우, 두 시장 모두 다목적 화장실

(c2)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법적 기준에 따른 최소한의 설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고객 쉼터(c1)와 영유아 배려공간(c3)은 전반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구월시장은 고객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의 체류 편의성이 낮았으며, 모래내시장은 고객 쉼터 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두 시장 모두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외에는 별도의 영유아 배려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영유아 동반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자, 보호자, 영유아 등 다양한 이용자의 행태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시설 계획의 한계를 보여준다.

안전시설은 화장실 내부 항목인 남녀 화장실 동선 분리(d3)와 범죄예방시설(d4)이 두 시장 모두 적용되어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화재나 비상 상황 대응과 관련된 방재·안전정보(d1)와 비상시설 인지 디자인(d2)은 모두 미적용 상태로, 비상 시 이용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비상시설 관련 정보 제공 수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안내시설은 두 시장 모두 전 항목에서 미적용으로 나타났다. 통일감 없는 시장 에티켓 안내시설(e6) 등 안내체계의 시각적 연속성(e1)은 전반적으로 미흡하였으며, 글자 없이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픽토그램 및 컬러코드(e2)의 활용이나 다국어 안내(e3), 축지도(e4), 다감각 공간인지사인(e5) 등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요소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방문객이나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시장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두 시장 모두 시설현대화와 같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이용 환경은 일정 부분 향상되었으나, 유니버설디자인의 핵심 가치인 ‘모든 이용자의 접근성과 포용성 확보’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의 항목에서 ‘일부 적용’ 또는 ‘미적용’으로 평가된 것은, 현행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여전히 시설 설치 중심의 하드웨어적 개선에 머물러 있으며, 이용자의 다양성과 행태를 고려한 계획적 설계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두 시장에서 진행된 지원사업이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동일한 사업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시설 항목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현황이 상이하게 나타난 점은, 사업 시행 주체와 추진 시기에 따라 개선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적용 수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반에 걸쳐 유니버설디자인의 통합적 기준과 관리 체계가 부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전통시장 개선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나 외형 개선을 넘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유니버설디자인 항목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현황을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행 정책 구조가 여전히 시설 설치 중심의 하드웨어적 개선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 화곡중앙골목시장과 대전 중앙시장의 사례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체계적인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전통시장법의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중복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항목의 제한이 존재하였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의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에서 통합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인천 모래내시장과 구월시장은 전통시장법에 근거한 시설현대화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을 통해 물리적 편의성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용자를 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체계적 적용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특히 두 시장의 동일한 시설 항목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수준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전통시장 지원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기준이 부재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전통시장 지원정책은 사업 간 연계성과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정책 구조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은 사업 목적과 예산 구조가 상이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수준과 범위가 일관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니버설디자인을 의무화하는 국가 단위의 통합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주체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전통시장 개선이 추진될 수 있으며, 적용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통시장 유니버설디자인 통합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기획·심사·평가 단계 전반에서

UD 항목의 반영 여부를 검증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원사업별로 분산된 사업 내용과 성과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시장별 UD적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부처별 단위사업을 넘어 정책적 일관성과 통합성을 갖춘 국가적 지원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유니버설디자인은 전통시장 정책에서 부수적 항목이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기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처럼 유니버설디자인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정책 구조 속에 내재화될 때,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공간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포용적 생활 기반시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통시장 정책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체계적으로 포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전통시장부문)', 2024
2. 인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2025
3. 서울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북', 2020
4. (재)대전디자인진흥원, '대전 중앙시장 유니버설디자인 조성 성과도록', 2024
5. 임중훈, 임진이, '전통시장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남대문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5
6. 최희지, 장세빈, 알르바레스 가브리엘라, 황연숙,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공용공간의 유니버설디자인 평가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21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065호, 2025.10.1.)

8. www.mss.go.kr
9. www.mois.go.kr
10. www.semas.or.kr
11. dataroot.kbcard.com
12. www.moraenaemarket.com
13. www.guwolmarket.com